

제주도를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의 지역 원형

-월지족의 이동 경로와 관련하여-

최원혁
(대진대학교)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월지족의 이동경로와 동아시아의 지역 원형
3. 제주지역에 나타난 월지족의 지역 원형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변화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원형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기에 급변하는 세계에 변화를 통해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형을 찾아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원형을 찾는 것이 문화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의 원형과 관련되어 주목받는 새로운 연구는 월지족과 관련된 연구이다.¹⁾ 한무제 때 흉노족과 쌍벽을 이루어 장건 서역 원정의 계기를 만든 민족으로 알려져 온 월지족은 수메르와 함께 대표적인 수수께끼 민족이었다.²⁾ 그러나 월지족의 수수께끼는 한국사와 다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지족을 동아시아의 지역원형으로 생각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선사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BC 2-3세기 동아시아로 이주한 월지족이 사용하던 선사시대 유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³⁾ 실제 월지족의 문화는 동아시아 지역원형의 대부분이 겹친다고 한다. 탄소동위원소의 연

1) 월지족과 한국문화를 연결한 국내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대승불교 전파와 관련된 불교계의 연구, 성씨의 기원, 그리고 순수 한국 고대사 관련 연구 분야이다. 먼저 불교계의 경우 가야와 관계된 연구로 한대성(『고대 한국과 월지족 간 문화·종교적 근친성』, 동아시아불교문화.. 51집, 2022), 허인섭, 「초기 중국불교 성격이해를 위한 쿠산제국 시대 전후 중앙아시아의 종교적 상황과 불교 특성 고찰」, 『불교학연구』32, 2012.; 박용태, 「대승불교 형성기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의 성향」, 『한국불교학』 88, 2018, 고려대-중국 섬서사범대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13 등이 있다. 성씨의 기원과 관계되는 연구로는 마한 지방과 관계된 연구로 박동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 서울:범신사, 2020),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민족의 기원』, 서울: 푸른숲, 2000 그리고 본격적인 한국 고대사로서의 연구는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이준한 『고집불통 고대사 다시쓰기』, 서울:주류성, 2015. 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평안호 태왕비 건립 1600주년학술대회.자료집 등이 있다.

2) 오다니 나키오, 『대월지-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서울:아이필드, 2008

대기 문제가 석회암지대에서 오차범위가 크게 확대되는데 공교롭게도 100여년 동안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동아시아 선사지역 유적은 월지족의 이동 경로와 중복되고 석회암지대와 같은 탄소동위원소의 정확성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⁴⁾

한편 월지족을 동아시아의 지역원형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에 앞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동한 민족을 동아시아의 지역 원형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⁵⁾ 이들이 월지족의 선조들인지 월지족을 오해한 것인지는 연구 중이지만 동서양에서 모두 100여년 전부터 계속 연구되고 있다. 이 글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월지족과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동해 온 민족의 역사 연구를 종합하여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서와 유적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글이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떨어진 월지족이었지만 월지족의 문화와 역사는 한국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월지족 연구자들은 동아시아 고대사 특히 한국 고대사의 수수께끼는 월지족과 연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고 한다.⁶⁾ 특히 월지족은 한국이 가진 중국,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

2. 월지족의 이동경로와 동아시아의 지역 원형

월지족은 흉노가 복속되어 있던 가장 오래된 유목민족으로 흉노를 치기 위해 한무제가 장군을 파견시켰던 민족이다. 월지(月支, Yueh-chih)는 토하라 (吐火羅 Tochara) 로 불리고 월지족은 토하리인(Tokharian 혹은 Tocharian)이라 불리웠으며 박트리아에서는 토하로이(Tokharot)와 타림 분지의 투하르(Tukhar, Toxar/Toyar)로 나타난다. 이는 스스로 몽골이 스스로 부른 '타타르'라는 명칭과 한국어에서 월(月)을 뜻하는 '달', '땅'을 뜻하는 아사달의 '달'과도 유사한 발음이다.⁷⁾ 토하르와 유사한 발음으로 "대하"라 불리었던 파르티아가 토하르

3)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박동,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 과천: 범신사, 2020. 중국 학자들 또한 일찍이 신라금관은 월지족의 금관이라고 주장해 왔다.

4)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5) 한편 월지족 이전 메소포타미아 민족의 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먼저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연구로는 100여년전 양계초 등 중국 대표학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던 당시 유럽의 주도적인 중국 학자였던 라쿠페리(Lacouperie, Terrien De.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sation: from 2,300 B. C. to 200 A. D.』, London : Asher & Co.2005.)가 있었다. 라쿠페리 관련 논문으로는 쑨장 (『황제(黃帝)는 바빌론에서 왔다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개념과 소통』 5, 2010)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100여년전부터 일본문화를 메소포타미아와 관련해서 연구해 왔다.(김채수,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신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 『일본문화연구』 40,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던 이홍범 교수의 아시아밀레니즘 (Hong Beom Rhee, *Asian Millenarianism: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Taiping and Tonghak Rebellions in a Global Context*, Cambria Press,2006)이 있었다. 국내 연구로는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논문』 서울: 한국문화사, 2014.), 조철수 (『고대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김영사, 2003), 박용숙(『샤먼제국 - 헤로도토스 사마천 김부식이 숨긴 역사』 소동, 2010),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래네, 2001), 정형진(『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일빛, 2006) 등의 연구가 있었다. 박병섭, 『고조전과 스키타이족 문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시원』, 『고조선단군학』15, 2006, pp.90- pp.92, KBS 몽골리안루트 5부,그린포스의 후예들이 2001.3.6. 방영된 바 있다. 최근 연구로는 해외의 경우 주학연,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비교언어학으로 밝혀낸 중국북방민족들의 원류』, 문성재 역,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등이 있다. 최근 연구는 아레리카로의 이동도 연구되고 있다. 손성태, 『우리 민족의 대이동』, 서울:코리, 2014. 등이 있다.

6)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7) <https://en.wikipedia.org/wiki/Yuezhis>

였다. 토하르는 ‘대하’의 음사라 할 수 있다. 또 북경사범대 서문명은 월지(月支)는 Ordi 곧 월(月)은 ‘올’, 지(支)는 ‘디’일 수 있으며, 따라서 월지는 올디=Ordi로 볼 수 있고, Ordi는 ‘천막’이라는 뜻이 된다고 한다.⁸⁾ 곧 월지족은 천막생활을 하는 유랑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이라는 뜻에서 천막으로 뜻이 파생된 Ordi는 오르도스 지역의 어원이 되기도 한다. 월지는 중국기록에서는 『관자』에 처음 나타나며 우임금의 우(禹)씨가 월지라고 한다. 일찍이 기원전 500년경부터 월지족은 옥(玉) 무역을 하였고 주 고객은 농업 국가 중국의 통치자들이었다고 한다. 접미사 “디/즈/지(氏)”는 일반적으로 저(氏)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 사료에서 “서부 오랑개(서융)”라는 뜻이다.⁹⁾ 실제 월지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동해 온 민족으로 불린다. 서쪽 민족을 서융이라고 한 것은 “융”은 ‘축융’에서 보듯이 “불”과 관계되는 명칭이기 때문이다.¹⁰⁾ 월지족이 기원했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가지고 있었다.¹¹⁾

월지족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기원하는 이력은 다음과 같이 본다.¹²⁾ 기원전 20-15C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시아 요서지역에서 하가점 하층문화가 막을 내리고 융족(戎族)계열이 주도하는 하가점 상층문화가 발생하는 시기에 요서지방에는 강수량 부족과 한랭화의 영향으로 숲과 관목지대가 초원으로 변하여 농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지역에 정주하던 은(殷)족이 중원지방으로 내려가 상(商)왕조를 일으키는 시기와 맞물려 소아시아 및 지중해 지역에서도 가뭄과 한랭화로 인하여 반농-반유목(seminomad)을 하던 종족들은 전투적 유목민화 하고 그 중 스키타이(Scythia) 일부가 기원전 8C경 카스피해에서 흑해 북안(北岸)으로 이동하였다. 기원전 제2천년기말에 불가강의 한 인도유럽어족은 수레를 끌고 자신들의 땅을 떠나 시베리아 땅으로 올라가 예니세이강까지 갔다. 북쪽과 동쪽으로 카스피해를 돌아 이란까지 내려가 거기에서 키메르족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는 사카족(석가모니 종족)으로 불리다가, 기원전 7세기에 마침내 스키타이족이 되었다. 이 지역 원주민이던 킴메르(Cimmer)가 쫓겨 나면서, 소아시아에서 이미 멸망한 히타이트제국(帝國)의 공백을 메우며 철기문명 영향으로 변형하던 부레구야(不例拘邪, Phrygia)를 공격하자, 기원전 7C초 이들은 수도 고르디온을 버리고 일찌기 형성된 청동기 전파 루트를 따라 박트리아(大夏) 지방과 더 동쪽인 신강지방으로 탈출과 동진(東進)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레구야(不例拘邪, Phrygia)는 기원전 16-14C경 이란계 주민이 설립한 고대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미타국(米國) 혹은 미타니국으로 불렸고 히타이트제국(帝國)이 멸망한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로 종교적으로 조로아스터교(拜火教)를 신봉하였다. 초기에는 지역적으로 히타이트 문명의 수혜를 받아 철기와 농경문화를 향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월지국은 프리기아 족이 동쪽으로 이동 중에 정착했거나 혹은 프리기아 지역에서 정착했다가 아케메네스 왕조의 개창자인 키루스 2세가 중앙아시아를 정벌하려 갔을 때 따라 갔었던

8) 徐文明, <迦膩色伽王与大月氏王系>, <http://www.guoxue.com/discord/xwm/jnsj.htm>

9) 위키피디아 월지 <https://en.wikipedia.org/wiki/Yuezhi>

10) 축융은 삼황오제 시대의 불의 신 화정(正), 즉 태양신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월초가 건국된 중국 남방 지역에는 불의 신의 명칭이 중려했고, 그의 동생 오회도 불의 신이었다. 그런데 중려는 구려족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오회는 오나라 오씨의 조상신이다. 아울러 중려와 오회는 라씨족의 조상신이기도 하다. 「산해경」 해외서경에는 축융에 대해 '남방을 맡은 신인 축융은 짐승의 몸에 사람 얼굴을 하고 두 용을 탄다.'(南方祝融, 獸身人面, 乘兩龍)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박은 주석에서 축융이 '불의 신'이라고 했다.

11) 조로아스터 zoroaster (자라투스트라 zarathustra)는 옛 이란어로 '낙타를 타는 사람 (camel driver)을 의미한다고 한다.(피터 B. 골든, 『중앙아시아사 :불가강에서 몽골까지』, 서울: 책과함께, 2021.71쪽)

12) 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학술대회

민족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여 생긴 민족으로 보기도 한다.¹³⁾ 프리기아와 월지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월지국은 춘추시대 이후 중원제국 강대화에 따라 병합, 분리하다가, 전국(戰國)시대에서 한(漢)나라 때까지 중앙아시아 아무다르야강(江) 유역에서 활약한다. 전국시대 말기에는 서몽골로부터 간쑤[甘肅] 서부, 황허강[黃河] 상류, 동(東)투르키스탄, 중가리아, 서(西)투르키스탄의 일부에까지 미치는 대세력으로 하서회랑까지 점령하며 월지국을 세운다. 기원전 177년 흉노의 목특선우에게 공격을 받고, 월지는 감숙에서 쫓겨나 서쪽(일리-이식쿨유역)으로 이동한다. 서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다르야강 북안에 중심을 두고 그 남쪽의 대하(大夏 : 드하라의 음역으로, 아프가니스탄의 北半 드하레스탄을 가리키며, 당시 그리스인 식민왕국박트리아의 중심지)를 지배하였다. 그것은 한(漢)나라가 대월지(大月氏)와 더불어 흉노를 협격(挾擊)하고자 하여 장건(張騫)을 파견한(BC 139) 직후의 일이었다. 대월지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대하 지방의 통치에 힘써 파미르·힌두쿠시의 남북에 토착제후(土着諸侯)인 다섯 흡후(翕侯)를 두고 다스리게 하였다. AD 1세기경 다섯 흡후의 하나인 귀상흡후(貴霜翕侯)가 대두하고, 이어서 대월지에 대신하였다(쿠산왕조). 또한 황허강 상류 유역에는 대월지의 잔존세력이 남아 있어서 소월지(小月氏)라고 하였다.

월지족이 동아시아의 지역원형으로 부각되는 것은 월지족에게 복속되어 있던 흉노의 반란에 패하여 대규모로 유라시아의 동과 서로 이동한 후부터이다. 서쪽 박트리아쪽까지 이동한 월지족은 귀상 흡후 등 5개의 흡후를 복속시켰는데 이 중 귀상 흡후의 중국식 발음인 쿠산 제국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오래된 유목민족답게 월지족은 뛰어난 상공업 기술력으로 당시 유라시아 동서교역로의 중심이던 박트리아 지역에 간다라미술과 대승불교를 창성시키고 향후 동아시아 불교의 지역원형이 되었다.¹⁴⁾ 한편 동쪽으로 진출한 월지족은 한국의 월지국, 중국의 오월초, 일본의 야마토정권의 모체가 되어 삼신산, 미륵 등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의 원형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¹⁵⁾

동아시아 특히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은 고인돌, 미륵, 삼신산, 빗살무늬토기, 비파형 동검, 빗살무늬토기, 칠성신앙, 태양신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¹⁶⁾ 동아시아 지역원형연구에서 월지족이 중요한 것은 월지족의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원형의 대부분이 겹친다는 부분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원형을 월지족에서 찾는 연구자들은 관점을 바꾼다면, 곧 탄소동위원소의 연대기 문제가 석회암지대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의 선사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BC 2-3세기 동아시아로 이주한 월지족이 사용하던 선사시대 유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⁷⁾ 50만년전의 돌도끼가 발견되어 50만년전의 유적지라고 하는 동아시아 유적지는 대부분 50만년전 도구를 사용한 BC2-3세기 이후의 월지족 유적일수도 있다고 한다. 사실 공교롭게도 100여년 동안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동아시아 선사지역 유적은 월지족의 이동경로와 중복되고 석회암지대와 같은 탄소동위원소의 정확성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13)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14) 월지족의 쿠산제국 출신 번역가가 대승불교 초기번역자였던 축법호와 지루가참이다. 위키피이다 월지 <https://en.wikipedia.org/wiki/Yuezhi>

15) 미륵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 기원인 브라만교에 나오는 마이트레이야의 음식라도 한다. 내양신과 칠성신앙이 이 마이트레이야에 기원한다. 태양의 신이 라 계열인 마이트레이야, 미트라 라며 물의 신계열은 관세음보살의 기원이 되는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아니히타신앙이라고 한다. 아니히타는 금성의 여신인 이난나, 아쉬타르테, 비너스 계열로 연결된다. 이 계열은 월지족이 이동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까지 연결된다. 실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천문학은 칠성에서 보듯이 거의 동일하다.

16)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파주: 지식산업사, 2015.

17)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동아시아의 선사문화를 월지족이 사용해오던 선사시대 유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동위원소 계산 뿐 아니고 월지족 이전에 동아시아에 있던 민족이 또한 월지족과 관계되는 민족이라는 점이다. 월지족을 동아시아 지역 원형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흉노의 침략 이후 곧 BC2-3세기 나타난 월지족은 주로 페르시아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이해하는데 문제는 월지족이 동아시아로 오기 전인 중국의 요순시대, 한국의 부여와 같은 국가에 이미 월지족과 같은 페르시아 문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BC2-3세기 나타난 월지족의 페르시아 문화와 요순시대에 나타나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매우 유사하다. 중국 사서에 이들은 축융, 공공족으로 기록되고 한국 사서에서는 부레가야, 서양에서는 프리기아로 나타난다.¹⁸⁾

월지족과 관계된 이동경로를 종합한다면 월지족이 이동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민족들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건국한 키루스 대왕이 중앙아시아에서 전투 중 사망한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중국 사서에는 전옥고양, 소호금천과 같은 축융과 관계된 민족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 한국은 부레가야와 같은 부여와 가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 선사문화의 대표적 코드인 고인돌, 편두, 빗살무늬토기를 살펴보면 첫째 고인돌의 경우 월지족의 조상 문화나 천제문화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고인돌은 원래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출신인 월지족들이 '침묵의 탑'을 대신하기 위해 파지리크 지역에서 사용한 장례 공간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¹⁹⁾ 지금도 조상 풍습이 있는 티베트에서는 시체를 '천장대'라는 바위 위에 올려놓고 사지를 절단한다고 했으며, 이란에서는 조장을 한 후에 뼈를 추려서 옹관(독무덤)에 보관한다고 한다. 또 고인돌과 옹관은 세트르 나타나는 일종의 공반 유물(供伴遺物 : 유적지에서 함께 출토된 유물)이라고 한다. 오리온 별자리가 유독 많이 새겨진 고인돌은 최근 하늘과 통하는 통천문이나 땅에서 부활하는 지도자의 종교적 의식터로 해석되기도 한다. 고인돌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적석총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인돌의 기능을 천제로 해석할 수 있게 하며 대표적인 곳이 춘천 중도 지역이다.²⁰⁾ 아술리안 돌도끼처럼 월지

18) 『삼국지』 한전 내용에서 직급 신지(臣智)는 삼한에서 수장을 일컫는 뜻으로 상기 문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도로 연구자는 "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 報安邪跋支, 漬臣離兒, 不例拘邪秦支, 廉之號"로 읽으려 하며, 이를 해석하면 "신지 혹은 가우라고 부르는데, 신운국의 견지, 보안야국의 축지, 분신국의 리아, 부레구야의 진지럼"으로 해석된다. 진국(辰國)의 언어가 부여를 비롯한 고대 터키계어 음가와 관련 있으므로 『삼국지』가 쓰여진 3세기 이전의 국가이름과 지역을 고찰하면 『한전』에 기록된 신운국, 보안야국, 분신국, 부레구야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장에 열거된 신지(臣智) 혹은 가우라 부르는 나라와 수장 이름의 음가를 알기 위해 기원전후로 터키어와 관련된 어원을 사용했을 나라들의 명칭을 고대 아나톨리아에 위치했던 프리기아(Phrygia)가 부레구야(不例拘邪)·불리지(弗離支)로, 폰투스(Pontus)가 보안야(報安邪)로, 카파도키아(Cappadocia)가 가독(加毒)등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19) 월지족들이 거주했던 파지리크 인근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S. N 아스타호프 박사가 투바 공화국 타누올라 산맥 인근 타르갈리크 마을 근처에서 아술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했다고 한다. 주먹도끼는 월지족들이 사용하던 무기로 주먹도끼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정한 자체가 고고학계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한다. 아술리안 돌도끼라는 이름이 붙게 된 프랑스 생 아술 지역은 월지족들의 이동 루트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즉, 이 주먹도끼의 원산지는 프랑스가 아니라 월지족들이 원래 거주했던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이 되는 것으로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진 이 주먹도끼가 월지족들이 이동한 흔적을 보여주는 고인돌 루트를 따라 프랑스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20) 안동대 임재해 교수는 고인돌이 천제 기능과 관련지어 재해석하는 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한국은 세계 최다 고인돌 보유국이자 피라미드 구조의 대형 적석총 보유국으로 신석기 시대 냉혹한 빙하기를 동굴 속에서 버텨낸 신석기인들이 처음 동굴 속에서 나온 뒤 만난 태양을 신으로 간주했으며 이 동굴 속 출현의 계기를 재현한 것이 고인돌과 적석총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63>.

실제 월지국과 관련된 지역에서 동굴에서 태어난 예수와 동굴에서 태어난 미트라가 동시에 출현한다. 변광현은 고대문명의 중심지로서 금강산 이론을 문헌과 유적, 이론이라는 3중 증거법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변광현은 단군과 요임금이 건국했다는 BC 2300년경 기존 고대문명이 위성 충돌로 인한

족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고인돌을 연구한 결과 문화 원형에 대한 난제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고인돌의 경우 고인돌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그 반 이상이 월지족이 정착한 한국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고인돌은 심지어 한국과 가장 멀리 떨어진 영국, 프랑스의 고인돌 유적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문화의 주변문화로 알려진 한국이 중국보다 오히려 고인돌이 많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가진 국가라는 것은 아직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이다.

월지족과 고인돌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월지족의 시공간적 분포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수수께끼의 민족으로 알려진 월지족이지만 고인돌 이전의 시대로부터 쿠산왕조까지 월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넓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²¹⁾ 월지족을 고인돌 이전의 시대까지 소급시킬 수 있는 것은 월지족은 흉노족과 함께 고인돌 문화와 관계된 스키타이를 공통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의식(훈증)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특히 알타이의 샤먼들이 몸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훈증을 통해 병든 사람을 고치며, 집에서 악령들을 몰아낸다고 한다. 엘리아데는 헤르도토스와 메일리(1935)가 기록한 이런 풍습이 샤먼의 의식과 관계있다고 보고 '코노폴리의 연기를 이용해서 샤먼이 엑스타시에 이르는 풍습은 스키타이에 존재했다'고 결론지었다.²²⁾ 이 훈증은 월지족의 또 다른 이동 지역인 남미 지역에도 나타난다.²³⁾ 또 월지족은 월지족보다 10세기 이전의 민족인 편두, 고깔모자, 형사취수 등 프리기아와 습속에서 거의 일치하고 한국에서는 부레가야 등 프리기아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월지족은 형제와 같은 흉노에 밀려 동서로 나뉘어 여러 지역에 국가를 세운다. 동으로는 진시황 이후 산둥반도와 한반도에 이르게 되고 서쪽으로는 간다라 미술의 발상지로 알려진 쿠산왕조를 세우기도 한다. 대승불교의 부흥지인 쿠산왕조는 월지족이 인도 쪽에 세운 4개의 국가 중 후대에 가장 강성해진 귀샹왕조를 중국식 발음으로 부른 이름이었다.

고인돌이 월지족의 문화라면 세계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은 한국은 월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찍이 한국과 월지국의 관계에 대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간간히 주목되어 왔다.²⁴⁾ 한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없는 박씨²⁵⁾와 중국보다 한국에 많은 김씨의 존재를 통해서

자연재해로 붕괴되었다고 한다. 산해경과 서경, 불경에 나오듯이 당시 태양이 10개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금강산 위에만 태양이 비치고 나머지 지역은 어둠에 덮였다고 한다. 금강산을 중심으로 태양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새로운 청동기 문명이 빛살무늬토기와 같이 전파되어 나갔다고 한다. 불교의 수미산, 산해경의 고사는 당시 금강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성삼재,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14)

21) 오늘날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 화하족, 아리안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 대표적 민족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중앙아시아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유목민의 역사에 대한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세계사를 유목민족의 역사로 규정하고 유목민은 빗방울처럼 갈라졌다 합쳐졌다를 반복해왔다고 한다. 같은 종족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키메르, 쿠찬, 사가, 스키타이, 사르마트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알타이지역에서 기마민족은 각지로 이주하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언어와, 기원전, 종착지에 따라 크게 알타이 어족과 인도-유럽어족으로 나뉜다. 알타이족에 몽고족, 훈족, 투르크족 등이 있었고 인도-유럽어족에 아리아족, 드라비다족, 수메르족, 스키타이족, 게르만족 등이 있었다. 자크 아탈리 저,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128-130쪽

22) 정석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학원강좌 스키타이 세계와 한반도, <https://sinabrodym.tistory.com/2005>

23) 페루 아마존의 야샤닝가 인디언이 사는 마을에는 세계굴지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연구진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 마을의 '아야후아스카'라는 약초를 먹으면 몽상적인 상태에 우주뱀이 나타나 어떤 약초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약초가 지금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성분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며 수시로 DNA의 움직임까지 보여준다고 한다. (제레미 나비, 『우주뱀=DNA, 샤머니즘과 분자생물학의 만남』, 들녘, 2002)

24) 당(唐)나라의 요사겸(姚思廉)이 지은 양서(梁書.629년)에 의하면 "중천축국(中天竺國)은 대월지국(大

도 볼 수 있다.²⁶⁾ 이씨의 경우는 조선 왕조가 바로 직전 왕조였다는 점이 있다. 또 다른 일례로 가야불교 발상지로 주목받는 장유사에는 허황옥의 오빠 장유화상의 영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영정 그림에는 “月氏國來駕洛國長遊大和尚之照(월지국에서 가락국으로 온 장유대화상 영정)”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한다. 즉, 허황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월지국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⁷⁾ 또 삼한을 대표한 목지국은 월지국의 오기라고도 한다.²⁸⁾ 부여의 노인들은 부여는 먼 곳에서 왔다는 기록²⁹⁾ 그리고 프리기아의 음차로 보이는 부례구야(不例拘邪)의 기록도

月支國) 동남으로 수천리(數千里)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은 3만리(三萬里)이다. 일명 신독국(身毒國)이라고도 한다.” 고 하였는데 통전(766년)에서는 월지국(月支國)을 월씨국(月氏國) 이라고 하였다. 감숙성 둔황 남쪽에서 흉노에게 쫓겨 서역인 토노번까지 도망을 갔다고 한다. 이들은 본래 월지국(月支國)이었으며 신독국(身毒國)이라고도 하였다. 월지국이 곧 신독(조선)이었음을 말한다. 산스크리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25) 라쿠페리 이론은 박죽을 이끌고 황제가 이동했다고 한다. 박씨는 중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씨다. 대부분의 성씨가 중국에 있는데 유독 박씨는 없다고 한다. 과거 중국은 한국사람 하면 으레 한국 사람 하면 박씨라고 했다 한다.

26) 삼국유사 황룡사 9층탑 조에서 황룡사 건립을 제안한 자장의 말“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인데, 이미 불기(佛記·약속)를 받은 까닭에 남다른 인연이 있으므로 동이(東夷) 공공의 족속과는 동일하지 않다(汝國王是天竺刹利種族預受記故別有因緣不同東夷共工之族).” 곧 김씨성의 찰리족 유래설은 다 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한다. 김씨의 시조가 되는 산동의 투국으로 있던 김일제 세력이 신나라가 망하고 선비족으로 피신한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바로 모용씨의 시조가 될거라 보기도 한다. (모용외의 12대 선조가 乾羅이고, 이들의 탄생설은 소호족의 탄생설화와 동일하다고 한다. 후에 김일제의 후손으로 보이는 법흥왕의 선비족 이름이 慕秦이고 소호족이름은 김원종이란 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두가지 부류가 있어 김수로의 김씨는 김유신과 같으며 김일제의 진나라 후손 김씨와 다른 사카(스키타이)의 김씨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석가가 나온 budha gaya출신 찰리족 김씨라고 한다. 그들의 아명이 산다라, 사다함 등등이 김일제, 김원종등과 다른 이유가 여기있다고 한다. 청나라, 금나라, 신라 왕족의 공통 성씨로 주목받는 김씨는 삼황오제 시대 황제의 성이라고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알타이”의 뜻도 “金”이다.((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학술대회』)

27) 허황옥을 평생 연구해 온 김병모 교수는 김병모 교수는 『삼국유사』에 허황후는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기록된 반면 허황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은 월지국 출신이라는 서로 다른 기록을 접하고 혼란스러워 하며 그 이유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대월지의 제후국 중 하나인 쿠산왕조가 간다라 미술을 꽃피웠던 페샤와르(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가 나타나는데, 『위서』 「서역전」에 의하면 이곳이 바로 소월지국의 수도였던 부루사 성이 있던 장소이다. 이처럼 페샤와르에 허황후의 상징인 쌍어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허황후가 바로 월지국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샤와르의 동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허황후의 고향 아요디아가 있다고 한다.(, 『홈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28) 한국어 기원추적에 대한 강길운의 주장을 기반으로 할 때, 위만조선의 대신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망명한 진왕(辰王)이 이끄는 고진국(古辰國)이 터키계어를 사용했고 또한 월지국(月支國)을 다스리는 기록은 시기상으로 기원전 3세기경에 감숙, 영하성에 존재하다 기원전 2세기말 흉노에게 패한 후 박트리아 지방으로 서천(西遷)한 월지(月氏國)로 대응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 흉노열전에 의하면 월지는 기원전 174년 흉노의 노상선우에 의해서 궤멸적 타격을 입고 서쪽으로 이동하며, 그 지역에 존재하던 대하국(大夏, 박트리아)을 공격하여 속국으로 삼았다. 또한 『사기』 「대완열전」에 따르면 월지 또한 흉노와 습속이 같다고 하였으며, 고진국(古辰國) 또한 지역적으로 월지가 있었던 지역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원전 7C초 까지 존재하다 먼저 동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문화와 흉노습속을 가진 부례구야 (不例拘邪, Phrygia)의 영향 하에 있다가 이후 동진(東進)하여 진한(辰韓)이란 이름으로 낙랑지(樂浪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세기 그리스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지리지』에서 그리스, 박트리아 왕들의 세력 반대편에 Phryni (흉노)와 Seres(비단, 중국)이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부례구야 (不例拘邪, Phrygia)가 한전에 등장하는 고진국(古辰國)이거나 시기적으로 진국(辰國)보다 이른 시기에 동진하여 활동한 사실이 기원전 6세기 이전 기록인 『관자』 등에서 발(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학술대회』)

29) 정형진,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일빛, 2006. 부여사 6강, 부여는 망명한 프리기아인이 주도했다(신라얼문화연구원 원장 玄牛)] <https://www.youtube.com/watch?v=dqfycY-eDgg>. 위략의 내용을 덧붙여 선대로부터 강성하고 부유하여 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부여

남아 있다.³⁰⁾ 신라왕족은 스키타이족이라는 기록³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경문왕 신화의 그리스·로마신화와와 공통점 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둘째 월지족과 편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을 대표하는 특징인 편두 풍습은 월지족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편두는 한민족의 특징으로 고대 유럽을 호령한 훈족 수장 아틸라는 편두여서 한민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³²⁾ 실제 낙동강과 서낙동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김해 예안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4세기 때의 목곽묘에서 10구의 변형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편두였다고 한다.³³⁾ 고대 한반도의 편두 풍습에 대하여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누르는데, 이는 머리를 납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진한 사람의 머리는 모두 편두이다(兒生 便以石壓其頭 欲其褊 今辰韓人皆褊頭)"라고 기록하고 있다. 순장과 더불어 편두는 부여를 대표로 하는 한민족의 특징이었지만 이러한 편두 풍습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세기 초까지 행해졌고, 이집트와 마야에서도 나타났다.

신당서 서역전'에는 월지족이 세운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구자(龜茲; 쿠처)의 습속에 대하여 "자식을 낳으면 나무로 머리를 눌러놓는다"고 하여 편두 풍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대 이란에서도 편두 풍습이 있었는데 고대 이란에서의 편두 풍습은 집단 내에서 엘리트 의식을 규정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의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위적인 편두 풍습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셋째 월지족과 빗살무늬토기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월지족들이 강물이 굽어 도는 곳에 거주지를 정한 이유는 퇴적지에서 필요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함이었으며, 패총은 광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중화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탄산칼슘 성분인 조개껍질들을 쌓아둔 곳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위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라는 빗살무늬토기가 강변이나 해안가 패총에서 발견된 이유는 바로 이 토기가 광물 가공에 필요한 도가니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지족이 이동한 쿠르간, 신라, 마야 등은 실제 금과 관련된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고대문화의 경우 삼신산, 미륵을 살펴보면 첫째 삼신산의 경우 월지족이 한반도로 들어온 것은 삼신산이 있어서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독 한국의 삼신산이 동아시아에서 인정받은 전통이 있다. 금강산의 경우 의상대사에 의해 화엄경의 금강산이 한국의 봉래산이란 점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³⁴⁾ 실제 석가의 부계는 샤카족, 모계는 월지족인 코리족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삼신산을 찾아온 서북 일행처럼 한라산이 이미 영주산으로 불렸다. 삼신산이 있는

는 강력한 무기와 군사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 된다. 또한 부여왕이 죽으면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 한(漢)나라 조정(朝廷) 차원에서 옥갑(玉匣)을 항상 준비하여 놓는다는 내용에서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후한서』 부여전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30) 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 평안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러 고구려역사문화 국제학술대회'(구리시 주최, 2014.11.22.)

31) 정형진,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왕족』, 일빛, 2010.262p.

32) 고대 유럽 호령한 훈족 수장 아틸라는 한민족 - 신동아. 2003.10.28

33)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9/777167/> 매일경제 2019.9.29

34) 『동국여지승람』 유점사조(楡岾寺條)에는 월지국(月支國)에서 53불이 쇄북을 타고 이곳 해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정주한 곳이 유점사의 터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고려후기의 문신인 민지(閔漬)는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의상 법사께서 처음 오대산에 드셨다가 금강산에 이르자 담무갈보살이 현신하여 법사에게 말하기를 '오대산은 수행이 있는 사람들만 세간의 티끌을 벗어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이르셨다."하였다. 금강산을 화엄경의 금강산이라 지정하여 중국 화엄종의 3대 종장 법장의 동의를 받아낸 사람이 의상대사이고 실제 인도의 지공 스님이 금강산을 방문한다.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 일조각, 2012.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1991. 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곳에는 한국의 고대문화가 번성했다. 현재까지 금강산이 있는 곳에 춘천 중도, 지리산이 있는 곳에 마한 영산강 유적, 한라산이 있는 곳에 삼성혈이 있다. 어떤 연유에서 한국이 삼신산의 나라로 채택되었는지 지금까지는 의문이었다. 월지족이 삼신산을 찾아 세계를 이동한 이유는 멀리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³⁵⁾ 이는 월지족과 관계된 박혁거세와 선도성모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중국과 인도에서 고대로부터 한국을 삼신산의 나라로 인정한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둘째 미륵은 한국에서 유독 존중되었다. 세계 불교어디에도 한국처럼 미륵을 숭상하는 국가는 드물다. 마이트레이아에서 유래되었다는 미륵신앙은 월지족의 이동경로와 겹친다.³⁶⁾ 마이트레이아 ‘친구, 우정, 자비’라는 뜻의 미트라(mithra), 미트라스(mithras), 마이트라, 마이트리와 ‘구원’ ‘계약’이라는 뜻이 있어 ‘미래불’인 미륵의 이름으로 채택된 마이트레이아(Maitreya)³⁷⁾, 왕위의 자리라는 뜻의 카발라의 메타트론,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의 메시아(Mashiah, Messiah)의 그리스어 번역인 그리스도 (Christ)³⁸⁾ 등과 관계되는 미트라는 유포선과 서교에 공통되는 상제, 천주, 미륵과 연속선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⁹⁾ 대승불교신앙에서 미륵은 특히 타력신앙이며 중국과 이론에 비해 한국이 가장 성행했다.

동아시아 문화의 코드는 이상과 같이 월지족의 문화코드와 매우 일치한다. 특히 제주도는 섬나라라는 지역적 특성상 월장상의 이동 경로에서 그 문화를 원형으로 보존할 수 있었기에 동아시아 지역원형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

3. 제주지역에 나타난 월지족의 지역 원형

제주도는 월지족의 표지 유물로 간주되는 고인돌⁴⁰⁾, 옹관(독무덤)⁴¹⁾, 검은간토기(흑도), 붉은

35) 조철수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김영사

36) 미륵신앙의 기원은 월지족 이전의 로마 시대 파르티아로부터 기원한다고 한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을 지배했다면 파르티아는 실크로드 등의 내륙 교역로를 지배했다. 이 나라에서 받든 태양신 미트라가 전파되는 양상은 파르티아의 교역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말해 준다. 로마 제국에서는 민중 사이에 군신 미트라스 신앙이 확산되어 중동에서 탄생한 기독교와 으뜸을 다투는 커다란 종교가 되었다. 동방에서는 불교와 융합되어 미트라는 미래불 미륵이 되었다. 미륵은 실크로드를 거쳐 당나라에 전해지고 한반도의 신라나 일본(아스카 시대)에서도 독실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동지일출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미타불이 아미타불은 태양신(미트라) 숭배의 불교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륵 불뿐만이 아니라 미타불 역시 미트라 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석굴암의 본존불이 동지(미트라 신의 탄생일)일출점을 향해 앉아 있는 이유이다. 아미타불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의미하는 '無量光'이란 자체가 '太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또한 아미타불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인 아미타유스(무한한 수명을 가진 것) 또는 아미타브하에서 인칭접미사 '아'를 제외하면, '미트라'와 비슷한 이름이 되는 것 역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7) 목정배, 「미륵신앙의 현대적 의의」, 『한국미륵사상연구』19-20, (동국대불교문화연구소, 1987), p.335(장지훈, 1997, 34 재인용).

38) 김영한, 「중세말의 천년왕국사상과 하층민의 난」, 『동국사학』19-20, (1986), p.485(장지훈, 1997, 50 재인용).

39) 이원희, 「東學의 侍天主 思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pp. 9~55

40) 고인돌은 월지족의 조상터라고 한다. 페르시아 전통을 가진 월지족은 고인돌을 만들어 시신을 새가 먹을 수 있도록 천장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41) 옹관에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는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 중부, 한반도 서남부, 일본 규슈에 퍼져 있

간토기(홍도)⁴²⁾가 한반도에서 동시에 출토되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한다.⁴³⁾ 삼신산과 미륵에 대해서는 서복과 관계되는 한라산과 돌하루방, 그리고 삼성혈이 있다.

먼저 고인돌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제주도에는 월지족의 표지 유물 네 가지가 한 곳에서 출토되는 유일한 곳인 용담동 선사무덤 유적이 있다.⁴⁴⁾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년, 1530)에 칠성도가 등장한다. “제주성 내에 돌로 쌓아올린 터가 있다. 고양부 삼성이 처음 등장하고 삼도(일도·이도·삼도)로 나누어 차지하고, 복두 모양을 본따서 대를 쌓고, 나누어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오늘날 제주시는 제주 구시가지인 칠성시장에 일곱 개의 돌로 만든 칠성대를 복원하였다.⁴⁵⁾

다음 빗살무늬토기의 경우 그리고 한국 신석기유적 중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고 잘 보존된 고산리 유적이 있다.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시베리아 일대에서 발굴되는 토기들과 유사성이 강해서 이를 발굴한 핀란드 고고학자 아일리오가 ‘캄케라믹(Kammkeramic: 빗살무늬토기)’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한반도 문명의 태줄로 불리는 제주 고산리⁴⁶⁾는 파면 팔수록 수수께끼가 나온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마을은 제주 고산리이다. 내륙에서는 가장 오래된 강원도 오산리 토기는 BC 6000년 전으로 소급된다. 고산리에서는 시베리아 캄케라믹보다 오래된 1만년 전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세계 최초의 토기라던 일본 죠포토기(BC 1만500년)가 시베리아 아무르토기(BC 1만4000년), 제주 고산리토기(BC 8000년)로 인해 복잡해졌다고 한다. 지금의 황하와 양자강은 1만년 전 거대한 강으로서 황해 평원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흘렀다. 황해는 평야였다고 한다.⁴⁷⁾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창세설화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천손신화가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삼성혈 신화가 존재하는 제주도에 바닷물에 쫓겨 복상하던 이들이 더 이상 해수의 침수를 받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참세상’이라고 여겼던 곳은 바로 하늘이 아니라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던 땅이었을 것이라고도 한다.⁴⁸⁾ 그러나 제주도의 빗살무늬토기 또한 오히려 후대의 월지족과 더 연결되어 있음을 삼성

였다고 한다 (권오영 최영은,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아시아리뷰』 10(1), 2020). 이는 월지족의 이동경로와 겹친다. 시신을 훈하게 여겨 조장을 했던 월지족은 땅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 옹관에 넣어 매장하였다고 한다.

42) 고인돌에서 특이하게 출토되는 유물에는 마제석검, 돌화살촉,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가지무늬토기,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옥, 청동화살촉이 포함된다. 고인돌에서 특이하게 출토되는 유물이 월지족의 표지유물과 관계된다. 예를 들어 붉은간토기는 토기를 성형하고 난 후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도구로 문질러 소성하거나, 토기 소성을 마친 후 바르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신석기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방법이며, 전자는 한반도 동북 계통으로 알려져 있다. 홍도紅陶, 단도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주 고인돌특별전 2016. 이들은 공통적으로 실용품이라기보다 의례용 물품으로 보인다.

43) 중국 또한 한국의 고인돌을 월지족의 고인돌로 본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뼈는 가덕도 사례와 같이 월지족과 같은 백인인 경우가 매우 많다. 문화일보 김문환의 유물로 읽는 풍속문화사] 출처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임재해는 고인돌이 적석총과 적석목곽분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임재해, 「고인돌과 적석총의 구조적 양식에 따른 제천문화 인식」, 유라시아문화학회 학술대회, 2021. 월지족의 이동으로 고인돌은 월지족의 고향인 중앙아시아보다 한반도에 더 많이 분포한다.

44) 이 유적은 기원전 200년경 만들어져 기원전후까지 이어진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유적 인근에 독무덤, 돌덧널무덤 유적과 고인돌이 모여 있어 대규모 마을 유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의 범위는 서쪽으로 용담동 무덤유적, 남동으로 한천변 오라동 제주시 종합경기장 일대, 북으로 고인돌 구역까지 약 5만평 이상이 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45) 제주인들은 ‘복두칠성’의 후예였다. 제주일보 2016.8.29.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5612>

46)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92>

47) 육지였던 황해는 순다랜드로 불리었다.

48) 오운홍,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잘못 알고 있는 마한(馬韓)』, 파주: 시간의물레, 2022

혈과 서복 고사는 보여준다.

다음 삼신산의 경우 제주 지역에서는 서복이 중심이 된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보냈다는 서복의 기록과 그에 관련된 이론은 월지족과 관련되어 세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불로초와 삼신산이라는 담론은 한무제때 도착한 선도성모 집단과 같이 더 이전에 도착한 월지족의 삼신산 이론이 진시황에게 알려졌다는 점, 둘째 제주도의 고, 부, 양 세 성씨는 서복이 살았던 산동지역의 월지족 성 고,부, 양씨로 이들은 곧 고구려 귀족이기도 하였다는 점, 셋째 고, 부,양의 배필이 출발했다는 벽랑국이 일본이 아닌 남해의 섬이라는 이론이다.⁴⁹⁾

첫번째, 먼저 진시황이 불로초와 서복을 신임한 것은 진시황이 월지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흉노가 성행했던 한나라 초기 이전 곧 진시황때 흥성했던 민족은 흉노를 복속시키고 있던 월지족이었다. 한무제 때 들어온 박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가 서왕모로 존중받은 사례로 볼 때 진시황때 월지족의 삼신산 신화가 진시황에게 전해졌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월지족의 신화이기에 진시황은 서복의 불로초 원정을 신뢰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⁵⁰⁾ 삼신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길가메쉬가 밭에 무거운 돌을 묶고 잠수하는 방식이 오늘날 제주도의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무거운 추를 달고 잠수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한다. 중국기록에 삼신산이 있가는 三島는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가상의 바다섬으로 섬 한가운데에 각각 높은 산이 있는데,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 또는 崑崙山이 그것이라고 하는 데 제주도는 이에 가장 부합된다고 한다.⁵¹⁾

둘째 진시황 시절 서복은 총 2차에 걸쳐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찾으러 왔으며, 1차 동도(東渡) 때는 제주도를 거쳐 서귀포에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차 원정때는 일본으로 바로 갔다고 한다. 1차 동도때 도착했다는 조천(朝天)이라는 이름 또한 서복이 처음 제주도에 도착하여 하늘에 조문하였다는 뜻이다.⁵²⁾ 이 1차 원정 때 남았던 사람들이 삼성혈의 고부양이며⁵³⁾ 실제 고부양은 서복이 출발한 지역에 가장 많은 성씨였다고 한다.⁵⁴⁾

제주도 해저산맥과 연결되는 최근의 연구는 서복에 대해 새로운 근거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 다양한 기존 이론을 종합한다. 서복과 관계된 기존 이론은 서복의 기착지가 제주도나 일본이 아닌 대마도, 혹은 남해라는 이론 등 다양하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은 남해와 대만 그리고 일본을 종합한 경로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제주도-이어도-상해를 연결하는 해저 산맥 지도이다. 해저산맥은 황해가 평야였을 때 실제 산맥이라고 한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진시황 때는 산이 섬으로 솟아 있게 되어

49) 신용하,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 국제학술대회, 2014

50) 월지족의 상징인 천원지방형 무덤의 기원은 월지족의 뿌리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천원지방 형태의 지구라트이며, 전방후원분은 이들 월지족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구축한 것이라고 한다. 전방후원의 형태는 천원지방의 3차원 입체적인 형태를 2차원의 평면에 투사한 모양이라고 한다. 월지족 출신인 선도성모 집단이 중국에 머무르던 당시는 한 무제 치세시기로서 무제는 일생 동안 종교, 신학 사상에 심취해 오제五帝, 삼일三一, 후토后土,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봉선封禪 의식과 명당明堂 건립, 제도 개정에 따른 대전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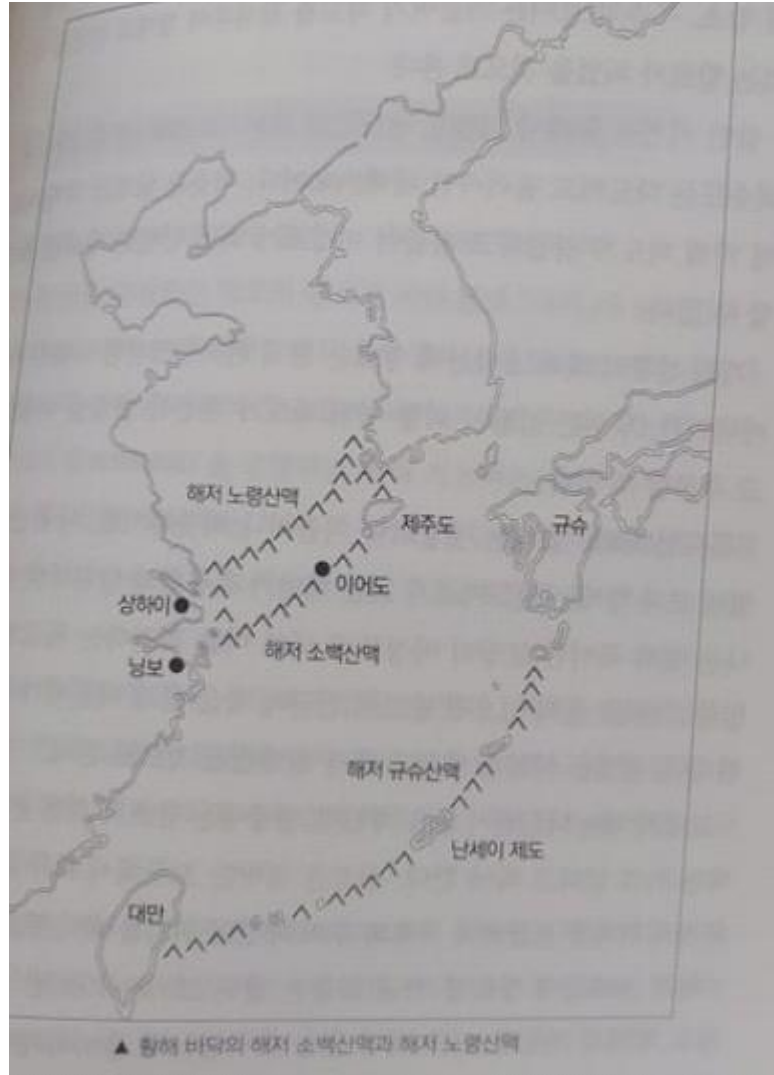
51) 열자列子_탕문편'에 “발해의 동쪽 수역만 리 저쪽에 대여·원교·방장·영주·봉래라는 오신산이 있는데, 그 높이는 각각 3만 리, 금과 옥으로 지은 누각이 늘어서 있고, 주옥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로불사한다고 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모두 선인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간다. 오신산은 본래 큰 거북의 등에 업혀 있었는데, 뒤에 두 산은 흘러가 버리고 방장·영주·봉래의 삼신산만 남았다.”(渤海之東不知幾億萬里有大壑焉其中有五山焉一日岱輿二日員嶠三曰方壺四曰瀛洲五曰蓬萊 이하 생략)

52) 제주시에 있는 산지천과 떨어진 조천이 제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것은 해류로 인해 늘 조천으로 도착했다고 한다

53) 백규상, 『역주 제주읍지』, 제주: 제주문화원, 2020

54) 『영주서복2』, 서귀포시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2014년.

섬을 연결하며 항해가 가능했다고 한다. 서북은 소규모 선단으로 움직였던 1차 항로때 이미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로부터 1차항로와 다른 2차항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서북의 제1차(BC19) 항로는 소규모 선단으로 중국 산둥성 낭야→ 저장성 동야



현(닝보)-타이완섬-오키나와 나패(현 나하)-규슈의 다네시마 (현 다네가섬)-규슈의 동안 미야자키 해안-세도나이까이-기이(紀伊)에 상륙했고, 한·중·일을 연결하는 서북의 항로를 탐색한 후 1차 귀환 항로는 기이(紀伊)→ 후쿠오카(福岡) -한반도 남해안-제주도 조천-서귀포)-가파도-마라도- 이어도-주산군도- 중국의 저장성 동야현 출발지 낭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서북의 2차(BC210) 항로는 대선단을 이끌고 산둥성 낭야-저장성 동야현-제주도의 서귀포 성산포 인근 해 -한국 남해안-규슈()의 중부지방-구마모토현 야쓰시로(八代)시로 본다.⁵⁵⁾

서북은 2차 항로 때, 1차 항로와 다른 항로를 택했다. 1차 항해 때는 중국 저장성 동야현-오키나와 나패-일본 열도의 종도(M)에 이르는 항로 였다. 이 항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타이완을 거쳐 난세이제도의 나패를 경유하여 일본 땅에 도착할 수 있다. 현지 (일본 열도) 확인을 마친 서북 일행이 귀환할 때는 왔던 항로를 포기하고 새롭게 제주도를 거쳐 중국의 동야현에

55) 오운홍 ,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잘못 알고 있는 마한(馬韓)』, 파주: 시간의물레, 2022 263쪽

이르는 뱃길을 선택했다고 한다.⁵⁶⁾

서북 일행의 다음 시기인 진시황 통일 이후에는 월지족이 대거 한반도로 이동한 후 영산강 고분군 혹은 고인돌 지역으로 집결한다고 한다. 서북이 이용했던 해저 소백산맥은 당시 이미 수심이 올라가고 영산강으로 통하는 해저 노령산맥이 당시에는 더 이용이 용이했다고 한다. 월지족이 이동하여 세운 월지국은 나주와 영암일대이고 실제 이들 지역에는 고인돌과 고분군 뿐 아니라 달 월이 들어간 지명이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다.⁵⁷⁾ 진시황에 의해 오나라와 월나라가 망한 이후 오나라와 월나라의 귀족들은 대거 영산강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축융의 후손으로 월지족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나주의 기원인 라씨의 경우 중앙 아시아에서 태양신으로 불리던 태양신 라(羅)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초나라에 정벌된 이후 축융의 용성을 버리고 라를 성씨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대 라계 축융족의 영산강 유역 대이동으로 영산강 세력들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매우 강력했고, 그러한 태양숭배의 흔적은 각종 웅관묘와 웅관, 조족문 토기, 소도의 새, 긴 꼬리 닭 등에 살아 남아 영산강 유역 고대인들 나아가 백제 및 동아시아의 신념체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⁵⁸⁾

세째, 신용하 교수는 서북이 데리고 왔다는 혼인지의 주인공이 왔다는 벽랑국은 남해에서 오고 탐라국의 기원 설화가 있는 삼성혈도 월지족이 도착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기원전 2-3세기의 사건이라고 한다.⁵⁹⁾ 벽랑국에서 건너온 세 공주와 합동 혼례를 올렸다는 혼인지의 3개의 신흠방도 월지족의 특징인 동굴 곧 마한식 혈거 주거 형태이다.⁶⁰⁾ 제주 남서쪽 산방산에는 산방동굴이 남아있다. 실제 삼성혈 신화에서 고부양은 월지족처럼 화살을 날려 영토를 정한다. 월지족은 말위에서 활을 쏘는 파르티잔 활법의 원조민족으로 활거레에 속한다.

다음 미륵과 관계된다고 하는 돌하루방은 제주도의 대표적 입석문화로 세계적인 디자인의 입석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월지족과 관계된다.⁶¹⁾ 돌하루방은 당시 세계제국이던 원나라 최고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원나라가 굳이 제주를 돌아 일본을 가려고 했던 것 또한 서북의 코스와 일치하기도 한다.

실제 제주도에는 불교의 500나한과 일치하는 영실의 500나한 전설이 있고 한국 최초의 불교 전래지라는 존자암도 있다.⁶²⁾ 석가모니의 가계는 부계인 샤카족과 모계인 고리족으로 되어 있었고 고리족은 월지족이라고 한다. 신라 왕족 중 박, 석씨는 월지족, 김씨는 샤카족 계열이라고 한다.⁶³⁾

56) 오운홍,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잘못 알고 있는 마한(馬韓)』, 파주: 시간의물레, 2022 283쪽

57) 나주의 경우 1,090개 지명 중 48개, 리지총 55개에 달한다. 나주의 전체 지명 중 월계 지명을 차지하였다. 영암군에는 946개 지명 중 36개, 그리고 출산 나군 등의 지명 중 14개로 중복을 제거하면 총 48개의 통계 지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8) 박동,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 과천: 범신사, 2020, 187쪽.

59) 주채혁, 『몽·려 활거레문화론』, 서울: 혜안, 2011, 281쪽

60) 오운홍,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잘못 알고 있는 마한(馬韓)』, 파주: 시간의물레, 2022 293.

61) 주채혁, 『몽·려 활거레문화론』, 서울: 혜안, 2011

62)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27, 2021

63) 이준한, 『흙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4. 나가며

급변하는 고대문화에 기반한 도시 계획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카지흐스탄 아스타나시처럼 인공지능시대로 대표되는 오늘날 지역원형과 관계되는 고대문화는 박물관처럼 오히려 새로 살아나고 있다.⁶⁴⁾ IT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처럼 고대사 자료를 일반인도 풍부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과거에 폐기된 연구들이 세계적으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해외에서도 고대사를 인지하는 듯하다. 바야흐로 세계가 동시에 변화해야 하고 변화는 과거의 재해석에서 가능하다. 미륵과 삼신산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원형을 넘어 세계의 문화원형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한다. 그 고인돌도 월지족의 최종이동지였던 마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선사시대 유적은 마한지역의 월지국으로 이동하는 중간과정이나 월지족이 흩어지고 난 후의 유적과 중복된다. 월지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동아시아 지역원형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 동아시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4) 교황 9월 카자흐 공식방문...종교지도자대회 참석, 매일경제신문.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는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교, 가톨릭, 이슬람, 성공회, 정교회, 유대교, 힌두교 등 세계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4/327222/>

참고문헌

- 권오영 최영은,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아시아리뷰』 10(1), 2020
- 김석동,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 :유라시아 대초원에 펼쳐진 북방제국의 역사와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다』, 파주: 김영사, 2018
-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민족의 기원』, 서울: 푸른숲, 2000
-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파주: 지식산업사, 2015
- 김영한, 「중세말의 천년왕국사상과 하층민의 난」, 『동국사학』 19-20, (1986), p.485(장지훈, 1997, 50 재인용).
- 김용운, 『풍수화』, 서울: 맥스미디어, 2014.
- 김채수,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신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신화」, 『일본문화연구』 40, 년을 기념하는 한·중·러 고구려역사문화 국제학술대회
- 레프 구밀료프, 『상상의 왕국을 찾아서: 늘에서 보는 지구사, 언덕에서 조망하는 흥망사, 쥐구멍에서 듣는 인간사』, 서울: 새물결, 2016
- 마이클 스콧, 『기원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방향을 설계하다』, 파주: 사계절, 2018
- 목정배, 「미륵신앙의 현대적 의의」, 『한국미륵사상연구』 19-20, (동국대불교문화연구소, 1987)
-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서울: 景仁文化社, 2013
- 박동,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 과천: 범신사, 2020
- 박병섭, 「고조선과 스키타이족 문화에 나타난 한국철학의 시원」, 『고조선단군학』 15, 2006
- 박용숙, 『샤먼제국 - 헤로도토스 사마천 김부식이 숨긴 역사』 소동, 2010
- 박용태, 「대승불교 형성기 페르시아 영지주의 종교의 성향」, 『한국불교학』 88, 2018.
- 백규상, 『역주 제주읍지』, 제주: 제주문화원, 2020
- 변광현,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2001
- 서귀포시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영주서북2』, 2014..
- 서병국, 『동이족과 부여의 역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 성삼제, 『고조선, 사라진 역사』, 동아일보사, 2014
- 손성태, 『우리 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이다 : 멕시코편)』, 서울: 코리, 2014
- _____, 『우리 민족의 대이동』, 서울:코리, 2014.
- 쑨장, 「황제(黃帝)는 바빌론에서 왔다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개념과 소통』 5, 2010
- 신용하,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 국제학술대회, 2014
- 연호탁, 『중앙아시아 인문학 기행』, 글항아리, 2016
- 오다니 나카오, 『대월지 :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서울: 아이필드, 2008,
- 오운홍,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잘못 알고 있는 마한(馬韓)』, 파주: 시간의물레, 2022
- 윤기엽, 『고려후기의 불교』, 일조각, 2012
- 윤병렬, 『선사시대 고인들의 성좌에 새겨진 한국의 고대철학 :한국 고대철학의 재발견』, 서울: 예문서원, 2018
- 이원희, 「東學의 侍天主 思想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3), pp. 9~55

- 이준한 『고집불통 고대사 다시쓰기』, 서울:주류성, 2015.
- _____, 『홈스, 고대사 비밀을 밝히다』, 서울: 북랩, 2021
- 이진우, 「부여의 기원과 도읍지 비정에 관한 연구」, '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건립 1600주년학술대회
- 이형우 외 , 『찬란한 고대 압록문화』,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5
- 임재해, 「고인돌과 적석총의 구조적 양식에 따른 제천문화 인식」, 유라시아문화학회학술대회, 2021.
- 자크 아틸리 저,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 장지훈, 『한국 고대 미륵신앙 연구』, 서울: 집문당, 1997
- 정소문 , 『상고사어신해 : 탕그리, 단군은 있는가, 어디 있는가』, 고양: 서문당, 2012
- 정형진, 『고깔모자를 쓴 단군』, 백산자료원, 2003.
- _____,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왕족』, 일빛, 2010.
- _____,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일빛, 2006.
- 제레미 나비, 『우주뱀=DNA,샤머니즘과 분자생물학의 만남』, 들녘, 2002
- 제주문화원, 『제주문화』 27, 2021
- 조철수, 『고대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김영사, 2003
- 주채혁, 『몽·려 활거레문화론』, 서울: 혜안, 2011
- 주학연,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비교언어학으로 밝혀낸 중국북방민족들의 원류』, 문성재 역,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 최몽룡, 최성락 , 『韓國古代國家形成論 :考古學上으로 본 國家』,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최성락 외 ,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와 백제의 유입』, 서울: 학연문화사, 2020
- 크리스토퍼 벅위드, 『중앙유라시아세계사: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서울: 소와당, 2014
- 피터 B. 골든 , 『중앙아시아사 :불가강에서 몽골까지』, 서울: 책과함께, 2021.
- 한국불교연구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1991.
- 한대성, 「고대 한국과 월지족 간 문화·종교적 근친성」, 동아시아불교문화 51집, 2022
- 허인섭, 「초기 중국불교 성격이해를 위한 쿠산제국 시대 전후 중앙아시아의 종교적 상황과 불교 특성 고찰」, 『불교학연구』32, 2012.
- 허흥식,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